

순백색의 화이트 캐시미어가 최상

캐시미어라고 하면 초고급의 소재를 이미지 한다. 그렇기에 캐시미어를 값싸게 입수하게 되면 기분이 좋게 된다. 양질의 캐시미어를 사용한 것이 값이 싼 것과 양질이 아닌 캐시미어를 사용한 것이 값이 싼 것은 누메리감과 색상의 광택에 차이가 있다. 안가의 싸구려 캐시미어 털을 사용한 것은 명칭은 같아도 싼 물건에 불과하다. 캐시미어의 캐시미어다움은 양질의 캐시미어를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느껴지는 것이다. 양질의 캐시미어를 체감하지 못한 사람은 싼 물건이나 다소 못한 제품에 접하여 섬유 중의 보석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실망할 것이다. 결국 캐시미어는 고급이라고 하는 상식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다. 색상은 검정색도 무난하고 곤색이나 갈색이 그 다음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기호에 맞는 색상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캐시미어가 좋은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캐시미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지극히 불성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캐시미어를 사용해보지도 않고서도 좋다고 한다는 뜻이다. 캐시미어를 판매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권장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최고급의 캐시미어 100% 옷감 또는 그것을 사용한 옷을 체험 해보고 판매할 때에는 그 고객이 캐시미어를 구하는 진정한 목적을 알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다.

캐시미어는 캐시미어 종의 산양을 포함한 몇 가지 종의 산양에서 채취한 가늘고(15 μ m 전후) 부드러운 털이다. 캐시미어 산양은 거친 털로 전신을 덮고 있다. 그 털의 밑에 유모(부드러운 터)가 밀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모만을 사용하고 거친 털을 없앤다. 물론 거친 털이 섞여 있으면 등급은 떨어진다. 양질의 캐시미어는 중국의 내몽고 산으로 다른 산지에서 채취한 것보다 좀더 가늘고 부드러워 누메리감이 풍부하다. 다음이 몽골 산이다. 중국산 보다 다

소 굵으나 광택이 풍부하다. 이들이 상급이다. 이란산, 아프카니스탄산은 전자보다 비교적 굵고 누메리감이 떨어진다. 품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다. 털의 색상은 연한 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순백색의 화이트 캐시미어라고 하는 것이 최상으로써 이것의 산모량은 10% 정도이고 그레이와 갈색은 가치가 낮다.

방모 코트지로는 털이 짧은 중국산을 사용하고, 슈트지로는 소모사로 몽골산을 사용하는 등 부류하여 사용한다. 고객에게 캐시미어 옷을 만끽하게 하기 위하여 말해주고 싶은 것은 ① 솔더백이라던가 쇼핑백 등에 마찰된다던가 만원 버스나 전차에 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만원 버斯拉던가 전차를 타게 되면 옆 사람과의 마찰에 의하여 털이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자전거 통근을 하는 것도 바짓가랑이 등이 마찰에 의하여 털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② 매일마다 입지 않고 하루를 건너 띄워서 입도록 한다. 매일 착용하게 되면 형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다. ③모옥은 가위 등으로 잘라내는 것이 지저분하게 되지 않는다. ④ 무릎이나 팔꿈치 등을 함부로 쓰면 문질러지기 때문에 털이 잘 빠져 나오게 된다. ⑤ 비버가공을 행 한 코트는 튼튼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귀족들과 같이 우아하게 입어야 한다. ⑥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은 누메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고 또한 건조시에도 텀블 건조 등은 당연히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